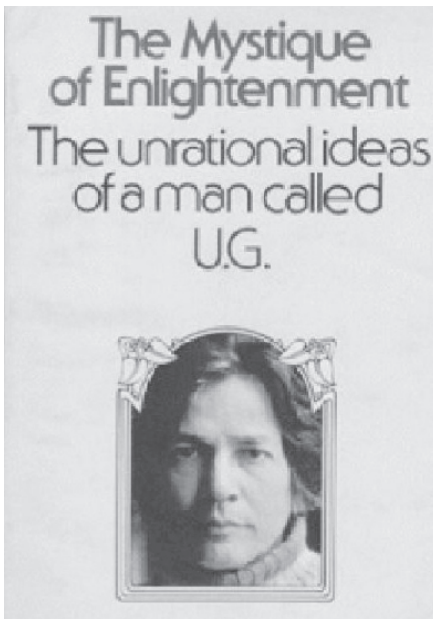


깨달음의 신비(11부)

U.G.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

| U. G.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자유로워지고 싶어 추구를 하지만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유임을 역설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어떤 순간에는 선생님이 표현하신 특별한 논리의 사슬을 따라갈 수가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갑자기 큰 불안이 엄습합니다.

묻고 있는 그것, 즉 묻는 자가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포감이 듭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근본적인 것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매우 귀중한 무언가가 파괴되니까요. 당신이 알고 있는 ‘나’, 당신이 경험하는 ‘나’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것이지요.

감히 질문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작용하기 시작하지요.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은 그 자체에 이미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답이 없다면 질문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지요. 당신은 외부나 내부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영역 모두 아무 소용없다고 밝혀지면 그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설명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진실일지는 몰라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내 경우 외부의 도움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안)에도 무력감이 없습니다. 안팎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둘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거리는 질문이 아니라 답입니다. 답이 없다면 그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질문보다 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현재가 아니라 내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 답을 찾으시니까? 왜 답을 찾으려 합니까? 답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뿐입니다. 당신은 질문은 제쳐두고 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들이 제시한 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게 옵니다. 답은 이미 주어져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을 확인받고 싶지만 이 사람(UG 자신을 말함)이 당신의 틀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 따위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추구는 끝이 납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추구를 하지만,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어떻게 해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말해준다면 추구에 힘을 보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것이 질문 중의 질문입니다.

그 ‘어떻게’는 다른 사람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나는 답을 발견했어”라고들 말하는데 그들은 그

들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이 당신의 질문에 답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답에 당신이 의존하고 있는 한, 당신의 질문은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라면 질문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답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답은 과정 없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과정이 당신을 물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질문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힙니다. 질문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물음에 대한 답,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생동안 당신에겐 이 물음 뿐입니다. “어떻게?”

그 ‘어떻게’는 다른 사람이 주는 답과 관련 있으므로 당신은 모든 답을 거부해야 합니다. 질문이 스스로 타 사라져야 합니다. 안이나 밖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질문은 스스로 타올라 사그라질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스스로를 태워 없앨 때,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답이고, 그 밖의 누구의 답도 아닙니다. 당신은 찾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답은 이미 존재하고 어떻게든 스스로를 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토록 얻고 싶습니까? 평생을 물구나무서서 지내고 나무에 매달려 지낸 사람들도 어디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개미언덕만 봉긋해질 뿐 그들은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는 내 모든 추구가 잘못된 방향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종교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생리적인 감각 작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생명은 원래 그 속성상 생각과 경험의 죽은 구조를 부수려 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허용만 한다면, 꼭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저기 저 나뭇잎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은 같은 질문의 변형입니다. 다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얼마나 진지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답을 원합니까? 질문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답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을 지식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식, 즉 전통 말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끝나야 합니다. 이 단순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고 싶다는 것은 당신의 지식에 힘을 보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식을 연속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책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대화도 과연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인 것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을 넘어서 어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난 모릅니다. 당신도 확신할 순 없지요. 그건 당신의 투사일지도 모릅니다.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작용합니다. 내 안에서, 당신 안에서, 정원의 달팽이, 지렁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의식은 모두 같습니다.

다. 내 안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는 경계가 있지요. 당신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한없는 의식이 당신을 몰아세우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물이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원래 속성입니다.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 생각과 경험의 죽은 구조를 부수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구조는 생명의 속성이 아니니까요. 생명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원치 않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곧바로 시멘트를 발라 메워버립니다. 당신을 몰아세우는 것이 꼭 깨달은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신을 인식한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든, 저기저 나뭇잎도 당신이 허용만 한다면 똑같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군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당신 쪽에서 일종의 의지를 발휘한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UG : 당신은 생명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생명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내릴 순 있지만 그런 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 이론을 갖다 붙일 순 있어도 그 또한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질문이 사라지도록 당신이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답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타버립니다. 물음은 생각에서 나왔으므로, 물음이 타버리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연소지요, 생각이 타버릴 때 물리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물음이 타버리면, 묻는 자도 함께 사라집니다. 질문과 질문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질문이 태워 없어질 때,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고 무수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일부분이며 그것의 발현입니다. 꽃이 생명의 발현이듯 당신도 생명의 또 다른 발현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유일한 차이라면 당신은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동물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인간의 경우에는 생각이 매우 복잡하게 펼쳐지지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동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그것은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놓여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능하는 도구로서 생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다른 용도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은 그저 어떤 것을 소통하고, 일상에서 기능하기 위한 임시적인 가치밖에 없습니다. “기차역이 어디요? 토마토를 어디서 삽니까? 시장이 어디니까?” – 이것이 전부입니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주의 근본적인 요구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 거기에서 자기기만自己欺瞞이 시작됩니다. 자기기만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생각은 다른 누군가와 의사소통할 때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합니다. 내가 왜 나 자신과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나는 비참해”, “저것은 마이크네”, “이 사람은 남자네”, “그 사람은 대단하네.” 왜 이러고 있습니까?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소리 내어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신병원행이지요. (웃음)

생각이 매우 피곤한 일이라는 말씀인 듯합니다. 너무나 소모적이기에 자연히 우리는 생각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생각은 당신을 소모시키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안타깝게도 생각을 더 보태는 일밖에 안 됩니다. 모든 기법과 시스템은 생각을 보태고 있습니다. 생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추는가?” 이것이 당신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당신은 어떤 길, 어떤 방식, 어떤 시스템, 어떤 기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면 선생님께서 더 나

은 질문을 제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생각을 하지 않고 싶은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이런 건 지긋지긋해”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끌어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그래도 여전히 생각은 그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생각이 요구될 때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구되지 않을 때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 생각이 요구될 때에는 생각이 일어나서 당신을 안내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도록 해줍니다. 생각에 대한 요구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 밖에 있습니다.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본다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생각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볼 때, 두 개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움직임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분을 할까요? 구분은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생각의 시작입니다. 매우 교묘하지요. 모두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도 전부 당신이 생각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뭐지?”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 당신은 그 생각을 어떻게 볼 겁니까? 질문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뭐지?”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답은 모두 정의일 뿐입니다. “생각은 이것이야”라고 말할 순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은 시간이다; 생각은 공간이다; 생각은 물질이다.”) 하지만 “생각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을 직접 보고 스스로 발견하고 싶다면, 생각을 볼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해 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생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제시한 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이 뭐지?”라는 질문이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답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질문이 타버리고 나면 그 질문이 있던 자리에 남는 것이 답, 에너지입니다. 물음, 생각은 물질입니다. 생각이 타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생명의 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에너지’는 같은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 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2007)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 개인의 일상에서는 생각이 필요하지만 궁극적 실체나 진리라는 의미에서는 생각을 거부했고 그 결과로써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여러 번 만나기는 했으나 관계없는 사람이다. 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쇼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